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1995, Vol. 5, No. 1, pp. 37~40

<토론2>

“영재와 영재교육: 피라미드 모델”에 대한 토론

이 재 신

(충북대학교)

토론에 앞서 우선 본 토론자는 이 자리를 빌어 그간 황무지와 같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영재교육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쌓아올린 조석희 박사의 큰 노고와 열정에 학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아울러 많은 찬사를 드린다.

통상 토론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연구자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기에 본 토론자 역시 가능한 한 이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토론자는 조석희 박사의 발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후 논의되는 내용 중 토론의 여지가 많은 것에 대하여 비판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석희 박사는 영재성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기초하여 영재성을 타고 난 인간의 능력 또는 적성이며, 영재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언어적 분야, 수·논리적 분야, 신체적 분야, 사회·정서적 분야, 음악적 분야, 미술적 분야, 내적 통찰적 분야, 창의성 분야, 그리고 기타 분야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재성에 관한 이러한 고찰에 근거하여 영재성이 계발되어 특수재능으로 발현되는 데 관계하는 여러 요인들간의 관계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 여기서의 특수 재능이란 개발된 능력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재성을 보이는 개인이 그 자신의 동기적 특성과 성격 및 환경적 요인, 그리고 체계적 또는 비체계적인 연습, 훈련, 학습 등의 긍정적인 작용의

결과 나타내 보이는 뛰어난 성취와 관계된 개발된 능력이며, 이는 인간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조석희 박사의 이 연구에 있어 또 다른 중요 내용은 영재 또는 특수재능의 판별과 집단편성 그리고 교육에 관한 두가지 형태의 피라미드 모형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첫번째 피라미드 모형은 영재성이 특수재능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판별과 집단편성과 개인의 경험, 훈련, 학습 등의 요소들간의 관련성을 구조화하려고 하였으며, 두번째 모형을 통하여는 영재 및 특수재능의 집단편성과 교수 학습방법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주장에서 우선 본 토론자는 영재성과 특수재능에 관한 개념 구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개념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공통되는 특성 혹은 관계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얼핏 보아 영재성과 특수재능을 타고난 능력과 개발된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구분한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영재성과 특수재능에 관한 개념의 이와 같은 인위적인 구분은 몇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영재성과 특수재능에 관한 개념상의 구분이 그렇다면, 영재아와 특수재능아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재교육과 특수재능교육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특수재능이 특정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와 관계되어 있다면 유치원 수준에서의 특수재능이란 존재치 않는다는 것이며, 중·고등학교 연령 수준에서의 영재라는 용어는 잘못 쓰여진 용어인가? 특수재능교육이 타고난 능력으로서의 영재성을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개발시켜 주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영재교육은 무엇을 개발시키는 교육인가? 영재교육과 특수재능교육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타고난 능력이 영재성이고 개발된 능력이 특수재능이라고 한다면, 영재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특수재능의 개발인가? 또한 특수재능을 개발한다는 말의 의미가 특정 분야에서 완전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음을 뜻하는가? 어느 수준까지 개발되어야 특수재능으로 간주되는가? 특수재능을 개발시켜 주지 못하는 영재교육은 쓸모 없고 실패한 교육인가? 이러한 많은 질문은 결국 영재성과 특수재능의 개념상의 혼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영재성과 특수재능에 관한 개념 구분상의 문제는 영재아와 특수재능아의 전체 비율에 대한 발표자의 주장과 이들을 판별하고자 할때의 규준집단의 크기에 대한 주장에서 그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영재성을 타고난 능력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15-20%에 속한다면, 개발된 능력으로서의 특수재능을 소유하는 아동은 논리상 15-20%에 속할 수가 없다. 또한 발표자의 주장대로 특수재능아를 판별할 때 같은 분야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규준집단이 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특수재능아를 모두 모아도 전체 인구의 1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상위 15-20% 수준의 뛰어난 성취를 특수재능으로 간주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 특수재능아 또는 특수재능아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교육

개혁심의회가 영재교육을 특수재능교육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나서부터이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용어 사용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진 까닭은 기본적인 근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실제적인 편의 내지는 현실적인 이유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 원리의 하나인 교육의 기회 균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교육의 불평등 내지는 엘리트 의식을 은연 중에 시사하는 영재 또는 영재교육보다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강조하는 특수재능 또는 특수재능교육이 영재교육에 대한 거부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본 토론자는 영재성과 특수재능이 별개의 심리학적 구인으로서가 아니라 본질상 동일한 구인의 또 다른 측면을 나타내기 위한 다른 이름으로 간주한다. 말하자면 한 개인이 지닌 잠재능력으로서의 영재성을 어떤 요인에 근거하여 파악하든지 간에 그 영재성이 구체적으로 발휘되는 성취 측면을 강조할 때는 특수재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석희 박사는 영재성을 타고난 능력으로 정의 내리면서 영재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여덟가지 분야로 지적하고 있으나, 토론자에게는 영재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로서가 아니라 영재성을 규정할 수 있는 능력 요인 여덟가지가 지적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이 중에서 내적 통찰적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영재성의 구성요소를 이렇게 파악했을 때 영재를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다음은 비록 연구의 중심되는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급될 필요가 있는 문제로서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 확대하는나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종극적으로 본다면, 누구를 영재로 정의내리는가에 달려 있다. 어떠한 정의를 내리는가의 문제는 분명 이론적 또는 학문적인 근거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사회, 시내, 문화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며, 영재교육을 통하여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으며, 때로는 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나 목적에 의존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는 인간관과 교육에 관한 철학의 문제로 귀착되기도 한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누구나 높은 수준의 잠재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파악하거나 전반적인 교육에서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일을 교육의 주된 과제로 간주한다면, 자연히 영재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일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발표자가 주장하듯이 영재성이나 특수재능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구가 상위 1-3%로 한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상위 15-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싶다. 특히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편화시키고 일반 학교내에서 영재교육을 실시,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를 감안한다면, 영재교육 실시 대상의 확대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복잡한 현상이나 사실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비교적 단순한 체계로 설명하려고 할때 모형을 빌어 쓴다. 모형은 추상적인 개념들의 관계를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사실 또는 사건 전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형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관심사 그 자체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영재성과 특수재능의 판별과 교육에 관한 피라미드 모형은 그 속에 포함되고 있는 여러 개념 또는 요소들간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토되거나 검증되지 못한 채 모형의 제시 자체가 목표인 양 성급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만약 제시되고 있는 모형 자체가 오히려 영재성과 특수재능의 판별과 교육 등의 여러 개념 또는 요소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동을 야기한다면 이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제 1 피라미드 모형을 영재성과 특수재능의 종단적 개발 모형으로 지칭하고 있는 바, 어떤 점에서 종단적 개발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못하며, 피라미드의 세 측면이 왜 그와 같은 배치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하다. 이와 함께 모형 속에 포함되고 있는 주요 구성요소인 판별과 집단편성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집단편성과 경험, 훈련, 학습과의 관계등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 2피라미드 모형에서도 집단편성에서의 퍼센트 구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것처럼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것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교수 학습 방법들과 집단편성에서의 단계 구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화살표를 통하여 표현되는 그 관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재교육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 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판별, 집단편성, 교수-학습 방법 등의 상호관련성을 하나의 모델로 의미있게 재구성해 보려는 조석희 박사의 창의적 시도 자체는 장차 이러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어려운 주제를 놓고 광범위한 사색을 통하여 의미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수고하신 조석희 박사에게 토론자의 비판적 논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끝내고자 한다.